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현안분석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김예경*

- 01 I. 들어가며
- 01 II.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특징
- 07 III.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주요 변수
- 12 IV. 한국의 대응방향

요약

- **지난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임
- **2020년은 미중 경쟁의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및 입장 유지 필요
 - 둘째,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필요
 - 셋째,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 검토
 -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 제시 필요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02-788-4551
ykmkim@assembly.go.kr



I. 들어가며

- 지난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중 경쟁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미중 간에 변화한 권력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규칙과 관계설정을 모색하는 일종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음¹⁾
 -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2020년 미중 전략경쟁은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과 각종 외교안보 현안 등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²⁾
 -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특히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
 - 둘째, 2020년 미중 전략경쟁을 전망하고 미중 경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한국의 딜레마 및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함

II.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특징

1.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

가.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 미국은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에서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1) 이상현,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미국의 시각」,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2019년12월10일, p. 13.

2)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on)’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둔 국가 간 경쟁으로 규정함

competitor)”로 규정하기 시작함

- 2005년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은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로 규정 한 바 있음³⁾
 - 졸릭은 부상하는 중국을 인정하는 한편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국제질서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함

□ 그러나 2017년 12월 미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새로운 외교안보정책 구상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미중 간 “강대국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이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여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함⁴⁾
- 또한 동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⁵⁾
 - 2018년 5월 미국의 ‘태평양사령부(Pacific Command)’가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ific Command)’로 개칭된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의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한편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설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함⁶⁾

-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미중 간 신냉전의 공식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⁷⁾

□ 2019년은 미중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함. 중국 외교부는 지난 40년간의 미중관계를 통한 교훈과 시사점을 ‘합즉양리, 투즉구상(合则两利, 头则具伤, 화합하면 양측 모두 이로우거나 싸우면 모두 다친다)’이라고 요약함⁸⁾

- 이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미중 관계의 상호 긴밀성과 우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때리기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기도 하며, 따라서 양국 관계의 험난함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⁹⁾

3)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4) 동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이념으로 내세우며, 이를 기반으로 한 안보전략의 4대 원칙을 제시함. 즉 미국 국민·국토·미국식 삶의 방식 보호, 미국의 경제적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미국 영향력의 증진 등임,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p. 25.

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p. 46.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구상’ 관련해서 2017년 11월 베트남 APEC CEO 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함

6)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Hudson Institute, Thursday October 4, 2018.

7) 김흥규,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적인 도래」, 『2018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9년 2월, pp. 95-97.

8) 「中美关系40年教训与启示, 华春莹一句话说清了」, 『环球网』, 2018년12월27日.

9) 焦世新, 「合则两利, 头则具伤」, 『光明日报』, 2019年06月25日.

나. 미중 무역분쟁

- 2018년 1월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수십 년간 이익을 취했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함
 -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8년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과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이하 ‘무역백서’)을 제목으로 한 백서 발간
 - 무역백서는 “2017년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우선주의’ 구호 아래 상호 존중, 평등 협상 등 국제 교역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경제 패권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 다른 한편으로 양국 협력 관계의 중요성과 건강한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함
 - 2019년 10월 13차 미중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음. 협상 종료 직후 미국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중국도 이어서 “미국과의 단계적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다. 미중 간 군사력 경쟁

- 2019년 6월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발표¹⁰⁾
 - 동 보고서는 중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질서를 흔들려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함
- 한편 미국이 2019년 8월 ‘중거리 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이하 ‘INF’)’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아시아지역에 INF 배치를 공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2019년 8월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음¹¹⁾
 -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동아시아 지역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도, 중국의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함¹²⁾

10)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11) Carla Babb, “US Defense Secretary Wants INF-range Missiles in Asia”, Voice of America, August 03, 2019.

12) 「日本和韩国，我们把这话放在前面」, 『环球时报』, 2019年8月4日.

□ 중국은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강군몽(强国梦)' 실현을 위해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¹³⁾

-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20년까지 군대 기계화·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달성하여, 2050년이 되면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한다는 3단계 발전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는 추세임
 - 중국은 2019년 7월 '신시대의 중국 국방(新时代的中国国防)'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통해서도 러시아와 군사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강화가 동북아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및 중러 대 미일 간 군사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음

□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함¹⁴⁾

- 중러 간 기존 군사협력이 주로 탄도 및 순항 미사일·무인기·함정과 잠수함 개발 등에 치중되었다면, INF 조약 폐기 이후에는 탄도미사일 방어망 체계구축을 위한 협력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임. 궁극적으로 과거 미국과 러시아 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이제는 미국 대 중국·러시아 간 군사력 경쟁으로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하 'KADIZ') 무단 진입이 빈번해지고 있고 작전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특히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하여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이 동북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으며, 이러한 양국 간 군사행동은 더욱 자주, 그리고 점차 공세적(assertive)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¹⁵⁾

라. 미중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과 갈등

□ 미국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중국이 주장하는 주권 및 내정불간섭 원칙과 부딪치면서 미중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및 티베트 인권 문제, 나아가서 홍콩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홍콩 인권·민주법안(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에 서명함
- 중국은 이에 대해 홍콩 사안에 대한 개입이자 중국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패권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¹⁶⁾

13) "China has the world's biggest military force. Now Xi Jinping wants it to be the best",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9, 2017.

14) 「INF 폐기 이후 중국-러시아 간 탄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 협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9년10월28일, 제621호.

15) Josh Smith, "Explainer: Competing claims make northeast Asian sea a flash point", Reuters, July 25, 2019.

16) 「任何威胁都吓不倒中国人民-干涉内政不会得逞」, 『人民日报』, 2019年11月29日.

2. 미중 전략경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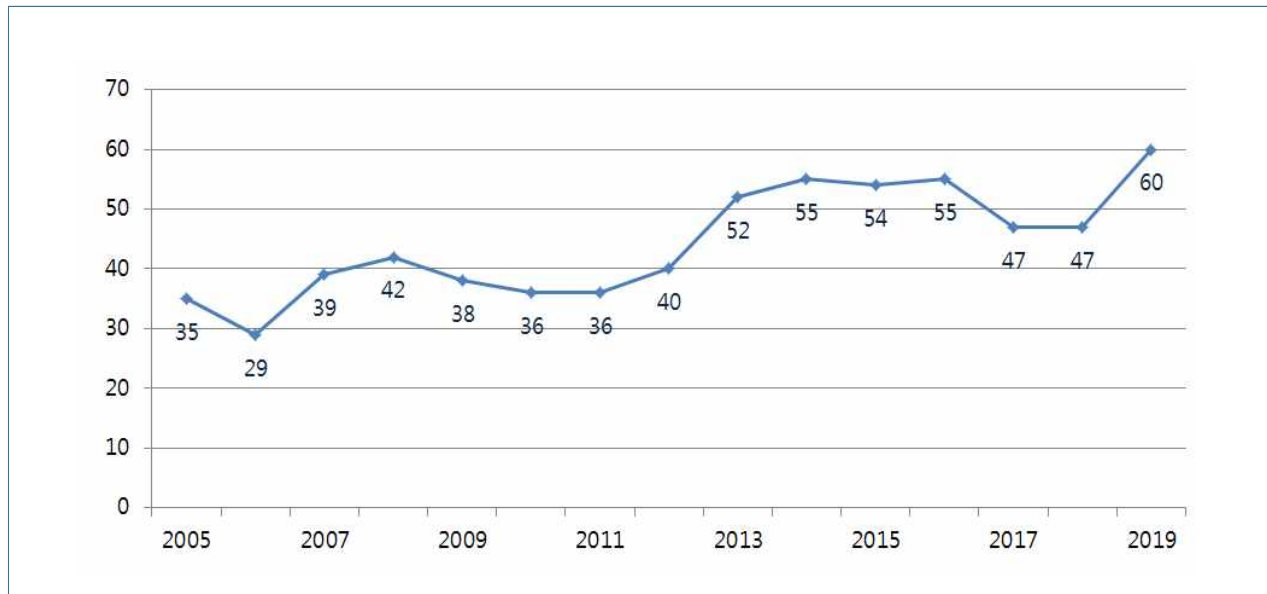
가. 미중 상호간 부정적 인식 확대

□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해 미중 상호 간 부정적인 인식도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부정적 인식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으며, 최근 15년 이래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
- 2019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

(단위: %)



※ 자료: Laura Silver, Kat Devlin, Christine Huang, "People around the globe are divided in their opinions of China",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30, 2019. 재구성

□ 한편 2018년 11~12월 중국의 화중과학기술대학(华中科技大学)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중관계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도 '경쟁관계'로 보는 시각이 44.2%, '경쟁과 협력관계'로 보는 시각 39%, '협력관계'로 인식하는 경우는 5.7%로 조사됨¹⁷⁾

- 이러한 결과는 2016년 동일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중국인이 미중관계를 경쟁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함
- 당시 중국인들은 미중관계를 '경쟁관계' 26%, '경쟁과 협력관계' 57%, '협력관계' 8% 수준으로 인

17) 华中科技大学国家传播战略研究院, 「中国公众的世界观念调查报告(2017~2018)」, 『人民论坛·学术前沿』, 2019年5期上.

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¹⁸⁾

나. 미중 전략경쟁 방식의 차이

-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매우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상대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맞대응의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임¹⁹⁾
-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에서 방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정한 ‘마지노선(底线)’을 정하여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만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해 왔음
 - 예컨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은 ‘신시대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전면적 추진’으로 집약된 바 있음
 -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지난 5년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의제설정권, 규범제정권, 국제사무발언권 등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함²⁰⁾
 - 중국의 일부 학자들도 중국의 부상은 단순히 경제규모와 종합국력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과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는 국제규칙의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음²¹⁾
 - 그러나 최근 중국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나 대외적 영향력 확대 등과 관련된 공세적인 언사는 자제하는 추세임
 - 이러한 중국의 방어적 경향은 지난 3월에 통과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제정 과정에서도 나타남
 -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중무역 협상을 의식해 「외상투자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견해도 있음²²⁾
 -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 법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중 무역 갈등이 촉발된 원인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강제 이전 강요 금지 등이 「외상투자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함
 - 최근 중국의 「상표법(商標法)」 개정도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의 일례로 평가할 수 있음

다. 경제 분야 위주의 경쟁

-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경쟁은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8) 张昆, 张明新, 「中美公众的世界观念调查报告(2016)」, 『人民论坛·学术前沿』, 2017年1期.

19) 「한중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해법」, 2019 한중 ‘몽(夢)’ 포럼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19.11.29.

20) 陈须隆(中國國際問題研究院), 「十九大报告体现天下为公的胸怀 具有重大世界意义」, 『新华网』, 2017年10月23日; 苏晓晖, 「新时代中国外交凸显‘塑造力」」, 『人民日报海外版』, 2017年10月23日.

21) 李向阳, 「中国周边战略目标与面临的挑战」, 『现代国际关系』第10期, 2013.

22) “China’s New Foreign Investment Law: A Backgrounder”, China Briefing, October 17, 2019.

- 미국은 인프라 투자와 발전 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에 1억 1,300만 달러 투입 계획을 발표함²³⁾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해외 인프라 투자 및 에너지 협력 등에 집중하는 경향과 유사함
 - 또한 2019년 11월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보고서(A Free and Open Indo-Pacific)’ 발표²⁴⁾
 - 폼페이오 장관은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개입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동 보고서는 미국의 비전과 접근법이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가 제시한 인도-태평양 개념, 인도의 신동방정책, 대만의 신남향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

III.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주요 변수

1.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가. 경쟁과 갈등 구조의 심화

- 과거 미중관계는 ‘긴장과 정상화의 순환(tension-stabilization cycle)’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²⁵⁾
 - 예컨대,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에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유지했음
 - 1995~1996년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했으며,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는 EP-3 사건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하면서 긴장관계가 급증했지만, 9·11 테러로 인해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경제대화(SED)를 시작함
 -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본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협력 기반의 접근법을 유지했음
- 그러나 향후 미중관계는 ‘긴장과 정상화의 순환’을 벗어나 경쟁과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²⁶⁾
 - 미국 의회는 「대만여행법안(Taiwan Travel Act)」, 「티베트상호여행법안(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 「아시아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등을 통과시킴
 - 대만, 티베트 등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제도적 접근이 향후 중국의 대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²⁷⁾

23) “Sec. Pompeo Remarks on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Indo-Pacific Business Forum, 30 July, 2018.

24) The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3, 2019.

25) Satoru Mori, “US-China: A New Consensus for Strategic Competition in Washington”, The Diplomat, January 30, 2019.

26) 정재호, 「미-중 관계의 진화(進化): ‘전략적 단계’로의 진입?」, 『중소연구』, 제37권 제4호, 2013/2014(겨울).

27) 김한권,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망과 한국에 대한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22), 2019년 8월.

- 일각에서는 미중 경제관계의 디커플링(decoupling, 脱钩, 탈동조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대사 겸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회장은 미중 경제가 ‘완전히 디커플링 된 세계(a fully decoupled world)’는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의 글로벌 경제 성장을 평가 절하하는 것이며, 동서를 가르는 철의 장벽이 재소환 될 수 있고, 새로운 재래식 및 핵무기 경쟁과 그에 따른 전략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²⁸⁾
 - 또한 이미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술·인재·화폐·투자 등 분야에서 미중 간 상호의존성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함
- 중국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양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시장에 집중하고 있음
 - 중국 내에서는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조화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 및 협력적인 국제우호그룹을 형성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²⁹⁾

□ 미국 학계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과열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도 함

- 2019년 7월 워싱턴포스트가 로버트 커헤인(Robert O. Keohane), 조셉 나이(Joseph Nye), 데이비드 램튼(David M. Lampton), 케네스 리버설(Kenneth Lieberthal), 청리(Cheng Lee), 엘리자베스 페리(Elizabeth J. Perry) 등 미국의 저명한 학자 및 외교전문가 100명이 서명한 ‘중국은 적 아니다(China is not an enemy)’라는 제목의 서한을 공개함³⁰⁾
 -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는 견해임
 - 동 서한은 중국의 도전적인 행동들에 대해 미국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현재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역효과를 낳는다고 우려하며, 중국이 모든 면에서 맞서야 할 경제적 적이나 실질적인 국가 안보 위협은 아니라고 주장
 - 한편 미국이 우방국을 압박해 중국을 경제·정치적 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보다 미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함
-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2019년 7월 미국의 보수성향의 군 전문가 및 학자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냄³¹⁾
 - 동 서한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언급하는 야망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상반된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

28) Kevin Rudd, “The Great U.S.-China ‘decoupling’ dilemma”, Axios, Nov. 12, 2019.

29) 刘亚伟, 「2020年的中美关系和世界前瞻」, 『中美印象网』, 2019年11月18日.

30) “China is not an enemy”, The Washington Post, July 3, 2019.

31) “Stay the Course on China: An Open Letter to President Trump”, The Journal of Political Risk, July 18, 2019.

□ 한편 중국 내 일각에서 미중 간 신냉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³²⁾

- 중국과 미국의 국력의 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자국의 글로벌 우위를 확고히 하고자 함
- 미중 전략경쟁은 미중 간 경제 및 기술경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또한 국제적 위신과 리더십을 둔 경쟁이기도 함. 한편 이데올로기적 불일치도 이러한 강대국 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임
- 한편 일부 중국의 학자들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조언하고 있음
 - 파괴적인 경쟁관계보다는 경쟁적인 공존 관계를 재정립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나. 미중 간 상호 협력 요인의 부재

□ 미중 갈등과 경쟁은 구조화되고 있으며, 미중 간 상호 협력 요인은 부재한 상황임

- 미중 양국은 상호 협력 요인은 부재하면서 상호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대화 채널도 중단됨

□ 첫째, 미중 양자 간 전략대화의 중단

-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 포괄적 경제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소통 채널이 중단된 상황임
 - 미중전략경제대화는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별도로 진행해 왔던 ‘전략적 경제대화’와 ‘고위급 대화’를 합쳐서 장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대화로 격상된 것이며, 2016년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는 경제통상 문제·남중국해 문제·북핵 문제 등이 논의된 바 있음
 - 2017년 7월 미국의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및 로스(Wilbur Louis Ross Jr.) 상무부 장관과 중국의 왕양(王洋) 부총리가 참석한 첫 번째 미·중 간 ‘포괄적 경제대화’가 개최된 바 있으며, 양국 대표는 ‘100일 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미·중 경제협력 1년 계획 추진과 거시경제 및 금융·무역·투자·글로벌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음

□ 둘째,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협력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음

- 미국은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한 바 있음³³⁾
-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8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강한 무역 방침 때문에 비핵화를 돕지 않는다. 미중 무역관계(마찰)가 해결된 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가능하다”며 중국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어, 미중 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음

32) Minghao Zhao, “Is a New Cold War Inevitable? Chinese Perspectives 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19, pp. 371-394.

33)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Hudson Institute, Thursday October 4, 2018.

2. 주요 변수

가. 미국의 대선 과정

□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 보이고자 할 것임

- 미중 무역적자 해소에 대한 성적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이러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미중 갈등이 단기적으로나마 잠정적인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음

나. 중국의 국내 문제

□ 당분간 미중 경쟁은 군사력으로 생사를 건 충돌 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리더십을 장악하기 위한 조용한 패권전쟁이 될 가능성이 전망되기도 함³⁴⁾

- 중국은 홍콩 및 소수민족 문제 등으로 내부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과는 규범과 가치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은 경제 발전 보다는 국가안전과 국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강조하는 경향도 뚜렷함³⁵⁾
 - 중국이 국내외 문제에서 “개혁, 발전, 안정” 등 경제문제를 우선적으로 인식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제법(提法)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2015년11월 개최된 18기 5중전회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95차례 언급될 정도로 중국 지도부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력히 피력된 바 있음³⁶⁾
 - 그러나 예컨대 19기 4중전회 ‘공보(公报)’에서 77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제도(制度)’의 중요성이 강조됨
 - 중국은 변화보다는 안정과 제도를 통한 국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함
- 중국의 지도부들이 미중 무역분쟁, 홍콩사태, 대만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도전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국의 통일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문제’는 선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애국주의 교육 강화 등 전략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도 높음³⁷⁾

34) 이상현, 정재홍,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및 국회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8.12, p. 97.

35) 「十九届四中全会公报中的六大亮点」, 『光明网』, 2019年11月1日.

36) 「中国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 『中国广播网』, 2015年10月29日.

37) “Beijing reiterates call for Hong Kong, to prioritize national security, patriotic educa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1 Nov, 2019.

다. 안보 현안의 부상

- INF 등 안보 현안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 전략경쟁이 군사영역 분야까지 확대·심화될 가능성 있음
 - 예컨대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³⁸⁾
 - 이와 관련 일본의 한 중국 전문가는 내년(2020년) 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일이 끝나면 미국은 새로운 미사일 배치 여부가 중일 간 큰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함
 - 이러한 가능성은 한중간에도 예외는 아닐 것임

라. 주변국의 여론 추이

- 만약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면, 동맹국들이 미국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³⁹⁾
 - 필리핀은 현재 미중에 대해 헤징전략을 취하고 있고, 호주도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미국과 가장 우호적인 동맹 국가인 일본 또한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적극적인 상황임
 - 따라서 미국이 동맹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초월해서 국제사회에 글로벌 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스웨덴·캐나다·한국·프랑스·미국 등 순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 수치가 높으며, 우크라이나·튀니지·나이지리아·러시아 등 순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38) 「美 INF 탈퇴 후...中, 韓日에 미 중거리미사일 배치말라 경고」, 『뉴시스』, 2019년11월9일자.

39) Will Moreland,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Necessary but not sufficient”, *Order from Chaos*, Brookings Institution, Friday, October 19, 2018.

|표 1| 중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

(단위: %)

순위	국가	비호감	호감	순위	국가	비호감	호감
1	일본	85	14	17	인도네시아	36	36
2	스웨덴	70	25	18	남아프리카	35	46
3	캐나다	67	27	19	폴란드	34	47
4	한국	63	34	20	리투아니아	33	45
5	프랑스	62	33	21	그리스	32	51
6	미국	60	26	22	브라질	27	51
7	네덜란드	58	36	23	이스라엘	25	66
8	이탈리아	57	37	24	케냐	25	58
9	체코	57	27	25	아르헨티나	24	47
10	호주	57	36	26	레바논	22	68
11	독일	56	34	27	멕시코	22	50
12	영국	55	38	28	불가리아	20	55
13	필리핀	54	42	29	러시아	18	71
14	스페인	53	39	30	나이지리아	17	70
15	슬로바키아	48	40	31	튀니지	16	63
16	헝가리	37	40	32	우크라이나	14	57

※ 주: '모르겠다'는 답변은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자료: Laura Silver, Kat Devlin, Christine Huang, "People around the globe are divided in their opinions of China",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30, 2019. 재구성

IV. 한국의 대응방향

- 미중 경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미중 간 디커플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이에 따른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는 가중될 수 있음. 중국과의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군사나 외교까지 포함한 국가전체의 위협과 기회요인이 라는 '국가전략'의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⁴⁰⁾
-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라 2020년 한국이 당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을 제시함

40) 이상현,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미국의 시각」,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2019년12월10일, p. 13.

□ 첫째,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및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유지

-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중국과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간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긍정적이나,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9년 11월 2일 한미 양국은 2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타이 방콕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Cooperation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를 마련해 공개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음⁴¹⁾
- 한편 2019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되어, 잔여 이슈 해결 및 협정문 서명을 남겨 둔 상태이며, 2020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⁴²⁾
 - 미 국무부는 RCEP 타결 직후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RCEP에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한중 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RCEP이 '아세안 중심'이라는 기본 입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⁴³⁾

□ 둘째,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안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

- 2019년 3월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이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어 왔으며, 동 평가가 마무리되면 임시 배치된 사드에 대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 시점은 2020년경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2017년 10월 봉합된 사드문제가 한중관계에서 또 다시 불협화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음

□ 셋째,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의 검토 필요

- 미국이 INF를 실전배치할 때까지는 적어도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⁴⁴⁾
 - 또한 미 육군은 새로운 중거리 정밀타격미사일을 시험 중에 있으나 2023년이 되어야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NF 배치 문제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이어 한미 간 최대 동맹 이슈가

41) 「한미 차관보 협의 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2019년11월2일자.

4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년11월5일자.

43) 「유명희 'RCEP는 中 아닌 아세안 중심 무역협정', '美와 통상 관계에 마찰 없을 것」, 『서울경제』, 2019년11월11일.

44) James J. Cameron, "As US Withdraws from INF Treaty Here's What You Need to Know", Gulf News, August 3, 2019.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해 INF 배치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서 입장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중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 제시 필요⁴⁵⁾

-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인해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미중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미중관계는 갈등과 경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며, 더 나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45) 이상현, 정재홍,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및 국회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8.12, p. 97.

참고문헌

- ////////////////////
- * 김한권,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망과 한국에 대한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22), 2019년 8월.
 - * 김흥규,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적인 도래」, 『2018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9년 2월.
 - * 이상현,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미국의 시각」,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2019년12월10일.
 - * 이상현, 정재홍,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및 국회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8.12.
 - * 정재호, 「미-중 관계의 진화(進化): ‘전략적 단계’로의 진입?」, 『중소연구』, 제37권 제4호, 2013/2014(겨울).
 - * 「美 INF 탈퇴 후...中, 韓日에 미 중거리미사일 배치말라 경고」, 『뉴시스』, 2019년11월9일자.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년11월5일자.
 - * 「유명희 ‘RCEP는 中 아닌 아세안 중심 무역협정’, ‘美와 통상 관계에 마찰 없을 것」, 『서울경제』, 2019년11월11일.
 - * 「한미 차관보 협의 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2019년11월2일자.
 - * 「한중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해법」, 2019 한중 ‘몽(夢)’ 포럼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19.11.29.
 - * 「INF 폐기 이후 중국-러시아 간 탄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 협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9년10월28일, 제621호.
 - * Babb, Carla, “US Defense Secretary Wants INF-range Missiles in Asia”, Voice of America, August 03, 2019.
 - * Cameron, James J., “As US Withdraws from INF Treaty Here’s What You Need to Know”, Gulf News, August 3, 2019.
 - * Joellick, Robert B.,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 * Moreland, Will,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Necessary but not sufficient”, Order from Chaos, Brookings Institution, Friday, October 19, 2018.
 - * Mori, Satoru, “US-China: A New Consensus for Strategic Competition in Washington”, The Diplomat, January 30, 2019.
 - * Rudd, Kevin, “The Great U.S.-China ‘decoupling’ dilemma”, Axios, Nov. 12, 2019,

- * Silver, Laura, Kat Devlin, Christine Huang, “People around the globe are divided in their opinions of China”,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30, 2019.
- * Smith, Josh, “Explainer: Competing claims make northeast Asian sea a flash point”, Reuters, July 25, 2019.
- *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 * The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3, 2019.
-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p. 46.
- * Zhao, Minghao, “Is a New Cold War Inevitable? Chinese Perspectives 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19, pp. 371-394.
- * “Beijing reiterates call for Hong Kong, to prioritise national security, patriotic educa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1 Nov, 2019.
- * “China has the world’s biggest military force. Now Xi Jinping wants it to be the best”,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9, 2017.
- * “China is not an enemy”, The Washington Post, July 3, 2019.
- * “China’s New Foreign Investment Law: A Backgrounder”, China Briefing, October 17, 2019.
- * “Sec. Pompeo Remarks on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Indo-Pacific Business Forum, 30 July, 2018.
- * “Stay the Course on China: An Open Letter to President Trump”, The Journal of Political Risk, July 18, 2019.
- *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Hudson Institute, Thursday October 4, 2018.
- * 陈须隆(中國國際問題研究院), 「陈须隆: 十九大报告体现天下为公的胸怀 具有重大世界意义」, 『新华网』, 2017年10月23日.
- * 华中科技大学国家传播战略研究院, 「中国公众的世界观念调查报告 (2017~2018)」, 『人民论坛·学术前沿』, 2019年5期上.
- * 焦世新, 「合则两利, 头则具伤」, 『光明日报』, 2019年06月25日.
- * 李向阳, 「中国周边战略目标与面临的挑战」, 『现代国际关系』 第10期, (2013. 刘亚伟, 「2020年的中美关系和世界前瞻」, 『中美印象网』, 2019年11月18日.
- * 「任何威胁都吓不倒中国人民-干涉内政不会得逞」, 『人民日报』, 2019年11月29日.
- * 「日本和韩国, 我们把这话说在前面」, 『环球时报』, 2019年8月4日.

- * 苏晓晖,「新时代中国外交凸显‘塑造力」,『人民日报海外版』,2017年10月23日.
- * 张昆,张明新,「中美公众的世界观念调查报告(2016)」,『人民论坛·学术前沿』,2017年1期.
- * 「十九届四中全会公报中的六大亮点」,『光明网』,2019年11月1日.
- * 「中国十八届中央委员会第5次全体会议公报」,『中国广播网』,2015年10月29日.
- * 「中美关系40年教训与启示,华春莹一句话说清了」,『环球网』,2018年12月27日.

제105호

NARS

현안분석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